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덕천리는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 낮에는 벌써부터 무더운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농번기를 맞아 교회 텃밭에도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자급자족 하며 주일 식사와 반찬 사역 식재료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더워지는 날씨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 지난 4월과 5월의 사역을 함께 나누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4월 9일 부활절에는 전도계란을 300개 삶고, 포장하여 복음과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복음사역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오륜교회 농어촌선교팀과 함께 4월 16일(주일) 매월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처럼 교회가 꽉 차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덕천교회로 부임하던 해에 식사초대를 40명 예상하고 정성껏 준비 하였는데 단 2명만 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픈 기억으로 남았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많이들 안 오시면 어떡하지?”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도사역과 의료선교 및 이 미용 사역을 진행하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번 사역에 덕천리 지역에서만 53명의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눈물 나게 감사했습니다. 오신 분 중에는 난생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분도 계셨습니다. 그중에 더욱 감사한 일은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신 열매임에 더욱 감사합니다.



3. 5월 9일에는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무척이나 좋아하시며 “몇십년 만에 바다를 보신다”는 성도님의 말씀에 하루지만 다녀 오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요양원에 계신 최옥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몇 일전 심방을 다녀온 후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듯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주는 못가지만 두 달에 한번정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녀온 후에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무릎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병원치료와 수술을 권했지만 한번도 찾아오지 않은 자녀들은 치료를 거부하였고 요양원에서는 자녀들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여 부러진 상태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굳어진 다리는 휠체어 발판에 발을 얹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해줄게 없는 저로서는 한참을 울다가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니 “빨리 죽을 수 있게 기도 좀 많이 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식사 잘하시고, 건강히 오래 사세요”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백성으로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까지 믿음 잃지 않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기도해주셔서 막내 율이는 폐렴이 깨끗이 사라지고 원주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요즘은 영월에 있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 시간 거리를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연약한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창재 성도님 - 통풍 / 최옥녀 성도님 - 치매, 다리골절로 인한 통증
2. 새로 예배에 나오시는 고복순 성도님과 유돈산 성도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전도대상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덕내마을 김영숙님, 최씨네 서연희님, 수촌마을 황규형님, 소골마을 김춘옥님(이장), 바세마을 양수환/유홍련 가정이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교회 앞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사역 및 선교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5. 6월부터 8월까지 있을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1) 성경쓰기(로마서, 사도행전) 진행합니다. 한글공부와 더불어 하는 성경쓰기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2) 십자가회복 사역과 건축선교회 사역을 할 때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3) 7월 20일 ~ 23일에 있을 분당우리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 누리며 섬김을 통해 주의 사랑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4) 8월 12일 ~ 15일에 계획된 성석교회 선교위원회 사역을 통해 덕천지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주세요.
6. 기도해주셔서 첫째 솔이의 서울 직장(보훈병원) 근처에 월세로 숙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덕천교회를 통한 주님의 사역에 힘써 동역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2023년 6월 3일

강원도 정선에서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 올림.